특집 I

동남아 6개국 경제동향 및 진출전략(上)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

이 원고는 KOTRA 시장조사처에서 제공한 것으로 "KOTRA 해외시장"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한 것으로 다음호에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3개국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임.

싱가포르

1. 경제동향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98년 침체국면에 빠졌던 싱가포르 경제는 '99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높은 5.4%, 올 1/4분기에 9.1%의 높은 성장률을 각각 보임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6.5%에서 5.5~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싱가포르 경제는 당분간 계속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경제호전 요인 및 주요 산업동향

가. 최근 경제호전 요인

세계 전자수요 호황 지속, 미국과 EU의 경제호조, 일본경제의 꾸준한 회복, 주변 동남아 각국 경제회복에 따른 역내무역 확대 등에 힘입어 싱가포르의 대외수요는 올 1/4분기중 무려 16% 증가했다. 수출은 전자 및 화학제품 호황에 힘입어 금년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1.1%나 증가했으며 경기회복에 따라 내수도 올 1/4분기중 9.3% 확대되었다.

나. 주요 산업동향

'99년 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호조가 지속되어 올 1/4분기에 12.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 %)

1997	1998	1999	199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1분기
8.4	0.4	5.4	0.8	6.6	6.9	7.1	9.1

● 거시경제지표

지 표	단 위	1997	1998	1999	2000 1분기
경제성장률	%	8.4	0.4	5.4	9.1
경상수지	S$백만	25,112	35,188	36,026	8,101
무역수지	S$백만	-10,992	13,899	6,148	1,568
교역동향	S$백만	382,218	353,627	382,432	101,846
- 수 출	S$백만	185,613	183,763	194,290	51,707
- 수 입	S$백만	196,605	169,864	188,142	50,139
소비자물가	%	2.0	-0.3	0.0	1.1
평균환율	S$/US$	1.4848	1.6736	1.6949	1.6963
외환보유고	S$백만	119,617	124,584	128,457	128,159
금리수준	%	6.96	5.90	5.80	5.85

특히 1/4분기에 무역부문을 포괄하는 도소매업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17.2%의 성장률을 보였다. 건설업은 수주계약이 부진해 성장률이 11.2% 감소되었으나, 민간부문 계약의 증가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 서비스 부문은 1/4분기 6.9% 신장되어 회복세를 나타냈다. 싱가포르 제조업 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산업과 화학산업은 1/4분기중 21.7%와 22.4%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ㅇ 전자산업

Chip 類에 대한 세계수요 강세로 반도체 생산이 호황을 보였고 무선인터넷통신(WAP) 신제품 수요가 활발해 통신장비 생산이 확대되었으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수요 확대에 따라 인쇄회로기판(PCB) 생산도 확대되었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경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으나 생산량은 증가했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의 주문 증가에 따라 프린터 생산도 늘어났다. 반면 컴퓨터 부문은 일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을 재조정함에 따라 산출이 감소했다.

ㅇ 화학산업

의약품 및 산업화학 분야의 호조에 힘입어 1/4분기중 22.4%나 성장했다. 의약품용 정밀화학은 대미국·유럽 수출이 호조를 보여 산출이 확대되었다. 광물 첨가제, 촉매, 향수 및 음식용 화학제품의 경우 역내 및 유럽쪽 수요가 강세를 보여 역시 생산이 증가되었다. 반면 석유화학 생산은 일부

공장이 유지보수를 위해 조업중단을 해 감소되었다.

3. 수출입동향 및 외국인투자 동향

금년 5월까지 싱가포르의 총교역은 S$ 1,753억으로 전년동기대비 21.8%가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집적회로(IC), 통신 제품에 대한 높은 대외수요에 힘입어 5월까지 S$ 889억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했다. 수입 역시 국내 경기상승으로 인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이 확대되어 5월까지 전년에 비해 22.5% 증가한 S$ 864에 달했다.

● **싱가포르 제조업 주요분야 실적**

분 야	성장률(%, 전년동기비)		비 중
	1999	2000 1분기	
제조업 전체	13.9	12.9	100.0
전자제품	24.2	21.7	43.4
화학 및 화학제품	27.1	22.4	18.1
수송장비	-3.4	-4.5	5.7
금속제품	-3.6	9.5	5.0
기계 및 장비	-4.3	19.3	5.0
석유제품	-8.5	-29.5	4.4
인쇄 및 출판	10.1	20.3	4.0

세계 수요의 활황과 역내 수요의 강세에 힘입어 집적회로(IC)와 통신장비, 석유화학제품이 수출호조 품목으로 떠올랐다. 반면 인쇄회로기판을 비롯한 디스크드라이브는 일부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수출부진 현상을 보였다.

● **최근 수출입 실적**

(단위 : S$백만, 전년동기비, %)

구 분	1998 (증감률)	1999 (증감률)	2000. 1~5월 (증감률)
총교역	353,627 (-7.5)	382,432 (8.1)	175,277 (21.8)
수 출	183,763 (-1.0)	194,290 (5.7)	88,904 (21.1)
수 입	169,864 (-13.6)	188,142 (10.8)	86,373 (22.5)

참고 : S$의 대US$ 연평균환율 : '98년 1.6736, '99년 1.6949, 2000년 1.70(잠정)

한편 반도체 및 집적회로(IC), 축전기, 무선전화기, 측정 검사용 기기, 승용차,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대한 수입이 급증해 우리 업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주요국 투자동향**

(단위 : S$ 백만)

투 자 국	1997	1998	1999
미 국	2,422.6	2,293.0	3,586.6
일 본	2,032.0	1,822.2	1,179.9
유 럽	1,423.7	1,040.0	1,138.8
E U	1,398.4	880.8	1,099.8
스 위 스	25.2	153.8	26.4
기타국가	85.5	58.4	351.8
총 계	5,963.8	5,213.6	6,247.1

※ 주요진출품목 : 전자(반도체,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등) 석유화학, 의약, 정유 등

반도체 및 집적회로(IC)의 경우 신기술 정보통신 제품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고, 최근 반도체 가격이 올라 수

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웨이퍼, 소자 검사용 기기 등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붐을 타고 수요 급증세에 있는 무선전화기도 무선 인터넷 통신(WAP) 등 신기술 개발로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승용차와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대한 수요도 경기 호조에 따라 늘고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98년에 감소했던 외국인 투자액은 '99년 싱가포르의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확대되고 있다.

4. 한국상품 진출현황

가. 對한국 수입동향

금년 1~5월중 싱가포르의 對한국 수입은 S$ 32억5,600만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28.2%나 늘어났고 싱가포르 시장점유율은 3.8%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시장점유율 17.7%),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태국, 대만 등에 이어 제7위 수입대상국인데, '99년 싱가포르 시장점유율이 3.1%로 제10위 수입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올 들어 한국상품의 시장진출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전자·정보통신 산업호황에 따라 對싱가포르 수출주력품목인 전자부품(반도체, LCD 등), 무선통신기, 오디오·비디오 부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전, 자동차, 핸드폰 등을 중심으로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對싱가포르 수출품목이 전기·전자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99년의 경우 60.5%), 의류 등 일반 생활용품과 기계류, 화학제품 등의 현지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나. 수출호조품목 및 유망품목

● **對싱가포르 수출호조품목**

(싱가포르 수입통계기준) (단위 : S$ 천, %)

품 목 명	'99.1~5월	2000.1~5월	(증감률)
반도체	836,735	1,247,622	(49.1)
무선전화기	21,120	218,695	(-)
기타전자부품 (LCD 등)	36,044	94,563	(162.4)
승용차	10,436	39,698	(280.4)
폴리에스테르 직물	25,715	29,451	(14.5)
에어컨	9,401	22,325	(137.5)
축전기	14,294	21,528	(50.6)
중고의류	9,322	20,723	(122.3)
스테인리스강 평판	12,216	18,213	(49.0)

※ 수출유망품목 : 각종 전자부품류, 반도체 장비, 통신장비(네트워크장비 등), 목공기계, 감시카메라 등 보안시스템, 의료기기, 가구 부품, 특수직물, 조명기기, 주방요품 등

5. 수출확대 마케팅 전략

가. 현지 수입급증 품목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반도체는 수요업체에 장기적으로 공급되는 품목으로 대형수요업체 발굴 및 거래선 유지가 중요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장기투자가 필요한 품목이다. 최근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품질은 물론 디

자인과 패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 수요층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고 무선 인터넷통신(WAP) 등 새로운 조류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현지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차종을 도입하고, 중저가 이미지 탈피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아울러 판매차량에 대한 충실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능력있고 건실한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현지 차량등록제도 변경으로 향후 배기량 1,000cc 이하의 輕車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輕車 부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지업계의 관측이므로 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대해서는 한국산의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며 가격도 경쟁적이라는 평가이며 현지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상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지 바이어들은 일부 한국업체들의 품질관리가 미흡하며 문제 발생시 해결하려는 성의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선적 사례도 많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이다.

나. 수입증대 예상품목 및 진출확대 방안

시장 자유화 및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향후 싱가포르 통신시장의 빅뱅이 예상되며 통신 서비스의 범람과 함께 유무선 통신과 결합된 인터넷 사업붐을 타고 각종 통신기기·장비, 네트워크 장비, 통신케이블 등 기자재에 대한 특수가 전망된다.

진출유망 품목은 터미널 장비(Terminal Equipment), ADSL 모뎀, ISDN 장비, 위성장비(Satellite Uplink/Downlink Equipment) 등이 있다.

한국산에 대한 광고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기업과의 합작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통신장비, 네트워킹 장비를 공급하고 싱가포르와 정보통신 수준이 뒤지는 주변 동남아국가에 대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업체의 진출방안

반도체 생산설비, 담수화프로젝트, 발전소 증설, 소각로 증설, 수질 정화 프로젝트 등 산업설비 분야와 간척공사, 지하철(MRT) 공사, 공항 확장 공사,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교량 건설 등 SOC 분야에 대한 정부 프로젝트가 진행중인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며 산업설비의 경우 턴키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겨냥해 우리 업체는 기업자체의 High Reputation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 실적 및 경험, 회사 자금력, Project Financing 도입여부 등 입찰예비심사 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또한 조기에 정보를 입수해 발주처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유망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밖에 SOC 입찰시 현지 업체와의 제휴에 참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라. 싱가포르 시장의 특성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무역,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상품이 집결하고 인근 각지로 재수출되는 중계무역센터이다. 재수출 대상지역은 동남아

는 물론 서남아, 중동, 태평양 群島,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포함된다.

또한 자유무역정책 하에 술, 담배, 자동차, 油類제품 등 4대 상품群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자유무역시장이며 연간 7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 및 고소득층이 몰려드는 대규모 유통업이 발달된 시장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말레이시아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상황

'99년 5.6% GDP 성장률을 보여 경기침체에서 탈출한 말레이시아 경제는 올 1/4분기중 11.7%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IMF 및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금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분기 성장률은 1/4분기 보다 다소 낮은 10~10.5%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 1/4분기중 산업생산지수(IIP)는 '99년 동기대비 22.1% 증가해 올해 경기상승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3월에 180을 기록해 전년 동월의 152.7 보다 17.9% 증가했다.

특히 3월중 제조업 지수가 195.3로 상승해 전년대비 24% 증가하면서 1/4분기중 189를 기록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기 부문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8% 상승한 180.2로 나타났다.

● 1인당 GNP (단위 : US$)

1996	1997	1998	1999 (추정)	2000 (예상)
4,514	3,766	3,269	3,475	3,684

말레이시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99년 12% 증가했던 수출증가율이 올해는 10%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4월중 말레이시아 수출 및 수입은 298억4,200만달러와 246억8,4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19.2%, 27.7%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및 동남아시장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해 '99년 실질 GDP 성장률 5.6% 가운데 수출부문의 기여도가 3.8%로 내수부문을 크게 앞섰다. 한편 2001년에 말레이시아 1인당 GNP 수준은 '97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99년 2.5% 상승에 그친 민간소비증가율은 소득과 자산가치가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인소득세 1% 인하, 소득공제 확대 및 공무원 급여 10% 인상조치 등 정부의 총수요 확대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년에 8.3%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2.8% 상승에 그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민간소비 증가, 민간 및 공공투자 확대, 수출증가 등 총수요 증가로 올해 3.0~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9일 발표된 Barclays Capital 보고서는 연말까지 말레이시아 국가신용등급이 BBB+ 수준

●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 %)

1998	1999	1999 1분기	1999 2분기	1999 3분기	1999 4분기	2000 1분기
-7.5	5.6	-1.3	4.1	8.1	10.6	11.7

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S&P사는 작년 11월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무디스사는 Baa3 수준을 고수하고 있으나, 곧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투명성 제고, 신용거래 확대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경제의 경기회복 속도 및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 최근 경제호전 요인 및 주요 산업동향

◇ **경제호전을 견인하는 정부의 정책**

세계은행은 '98년 9월 시행된 고정환율제 채택 및 선별적 외환통제정책이 이자율인하, 이자율 및 환율 안정, 정책자율성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주도했다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했다.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지속된 말레이시아 정부의 팽창예산 정책은 공공지출(14.8%) 증가로 이어져 민간지출 감소(-3.5%)를 상쇄하면서 경기부양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저금리정책 및 유동성 공급 확대도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경감, 민간소비 진작 및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초래해 국내수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각국의 경기회복 및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주력시장의 경기활황 지속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에 수입확대로 말레이시아 제조업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 **주요 산업동향**

제조업은 수출(35.8%) 및 내수(24.2%)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 서비스산업도 운수, 창고, 통신을 중심으로 6.3% 성장했고, 건설부문은 '99년 -5.6% 마이너스 성장에서 주택 및 공공투자 확대로 1.2% 성장했다. 광업은 내수증가에 따른 원유생산 확대로 0.8% 성장했고, 농업은 고무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팜오일 생산 확대로 2.9 성장했다.

작년 제조업 매출총액은 121억8,400만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37.4% 증가했는데 최근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고무, 제지 부문의 가동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전체 생산설비 가동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GNP 성장률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는 '98년 27.9%에서 '99년 30.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3월중 제조업 총매출액은 전월 대비 15.8% 증가해 71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한 수준이다.

'99년 전자제품 총매출액은 341.58억에 달해 세계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말레이시아 최대 산업으로 반도체, 영상 및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469억4,700만달러를 수출했다. '95~'99년 기간중 연평균 수출 및 고용 증가률은 각각 22.2%와 6.8%를 기록했다.

● 1/4분기 주요산업 매출액 증가현황

(단위 : %)

제조업	서비스	광 업	건 설	농 업
27.3	6.3	0.3	1.2	2.9

* 전년 동기대비 실적임.

3. 교역 현황

◇ **수출입 현황**

1~4월중 수출은 298억4,200만달러를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반영해 전년대비 27.7% 증가한 246억8,400만달러를 기록해 수출증가율 19.2%를 상회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수출입동향

(단위 : RM백만, %)

구 분	수 출		수 입		수 지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7	220,890.4	12.1	220,935.5	12.0	▲ 45.0
1998	286,750.1	29.8	228,307.8	3.3	58,442.3
1999	321,181.0	11.2	248,870.0	9.0	72,311.0
2000(1~4)	113,385.6	19.2	93,759.2	27.7	19,626.4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 **수출 호부진 품목(1~4월)**

○ 호조 품목

전기전자제품은 말레이시아 최대 수출품목으로 172억1천만달러를 수출, 전년대비 20.0% 증가해 수출총액의 57.7%를 차지했다. 주요수출품목인 집적회로(IC)는 40억2,6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110.4%)에 따라 원유 수출물량 증가는 1.1%에 그쳤으나 수출액은 11억3,200만달러로 112.6%가 증가해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했다.

천연가스는 수출가격 인상(91.3%)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2.0%)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87.4% 증가한 9억4,700만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의 3.2%를 점했다.

○ 부진 품목

팜오일 수출액은 수출량 증가(18.4%)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39.3%)으로 전년대비 28.2%가 감소한 8억9,500만달러에 그쳤다. 세계은행은 1999/2000 기간중 말레이시아 팜오일 생산량이 98억8,300만t에 달해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류 및 관련 부자재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6억5,800만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했다.

4. 수입급증 품목 및 주요국 경쟁현황 (1~4월)

용도별 수입품 비중은 중간재(74.5%), 자본재(13.8%) 및 소비재(5.7%)이며 각각의 수입증가율을 보면 중간재(28.8%), 자본재(47.9%) 및 소비재(20.4%)로 '97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재 수입 감소세에서 벗어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일반기계 및 수송기계(62.1%), 공산품(16.1), 화학제품(7.4%)이다.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8.29% 증가한 3억2,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대출 확대, 경기호전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자동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승용차 및 부품 수입증가율은 각각 38.3% 및 81.4% 증가했다.

석유화학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8.53% 증가한 719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자, 자동차 등 내수 회복 및 링깃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인상으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용 진단장비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8.13% 증가한 3,586만달러를 기록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의료수요 및 대도시 병원신축이 증가해 병원용 진단장비 수요도 증가했다.

반도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3.50% 증가한 64억4,5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인터넷, 무선전화,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여 반도체 및 부품 수입도 증가한 것이다.

Intel, Motorola, AMD 등 말레이시아 진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생산 확대로 향후 수입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쇄회로기판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4.47% 증가한 6억6,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 수출 호조 및 경기회복에 따른 가전제품, AV기기, 사무용기기 수요증대로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다.

휴대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75.47% 증가한 1억1,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휴대폰 접속료가 폐지되어 사용료가 인하되었고, 부가서비스 제공 확대 및 주요 브랜드 판촉 활동 강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5. 외국인 투자 동향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4월중 승인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건수는 177건에 달하고 있으며 투자건수가 증가한 산업은 식품가공(17건), 목재가공(14건), 화학제품(17건)이고 전기전자에 대한 투자건수는 59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 US$ 억)

구 분	1997	1998	1999	2000 (1~4)
투자건수	494	502	482	177
투자금액	37.89	33.16	23.68	14.39

자료 : 말레이시아산업개발청(MIDA)

'99년도 외국인 투자규모는 재투자 감소로 전년대비 28.6% 감소한 23억6,800만달러를 기록했고, 신규투자는 '98년 16억8,400만달러에서 16억500만달러로 5.2% 감소했다.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11억8천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49.83%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 산업은 석유 및 석유화학, 제지

및 인쇄 출판, 비금속광물, 기계제조, 운수장비 분야로 나타났다.

6. 한국상품 진출 현황

● 대말레이시아 수출호조 품목

(단위 : US$천, %)

품 목 명	1999	증가율	2000 (1~5)	증가율
석유화학	132,595	77.3	98,947	156.3
컴퓨터	74,150	102.4	83,174	332.9
무선통신기기	34,256	867.9	32,101	172.1
가정용기기	39,144	127.7	22,366	64.6
금 형	17,543	-18.6	19,677	236.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한국상품 진출 현황에 대한 평가

'99년말 교역규모는 68억달러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이다.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1~4월중 대말레이시아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2억1천만달러와 11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링깃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단가 급등으로 가격이 마케팅의 key factor로 부각되고 있다.

1~5월 수출실적 기준시 반도체(38.1%), 전자관 및 부품(8.58%), 석유화학(7.07%), 컴퓨터부품(5.94%), 철강제품(5.29%) 등 수출상위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약 65%를 차지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로 수출품목 편중이 심한 상태이다.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무선전화기,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우수 및 적정 가격수준 설정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판촉활동 및 국가 이미지 홍보가 부족한 상태이다.

○ 향후 유망품목

판지, 비디오테이프, 유리제품, 세탁기, 절연전선, 냉장고, 스테인리스 및 합금강선재, 변압기부품, 주방용 전열기기, 폴리에스테르직물, 유기화학제품, 반도체제조장비, 리드프레임 등

7. 수출확대 마케팅 전략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테레프탈산 등 합섬원료, 프로필렌, 벤젠 등 기초유분, 파라크실렌 등 중간원료, ABS수지, LDPE, HDPE, 에폭시수지 등 합성수지 호조로 1~5월중 156.3% 수출이 신장되었다. 기초화학제품 이외의 제품 및 동 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 원자재 및 중간재의 시장진출 확대 및 현지 합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대말레이시아 수출부진 품목

(단위 : US$천, %)

품 목 명	1999	증가율	2000(1~5)	증가율	부 진 사 유
반 도 체	1,814,343	-18.8	532,848	-39.6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생산 확대
자 동 차	53,295	1,513.9	25,118	-10.5	수입관세 인상
특수기계류	56,493	79.0	18,270	-17.2	현지산 기계수요 증가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컴퓨터는 HDD(Hard Disk Drive), 기타 보조 기억장치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호조로 1~5월중 수출이 332.9% 증가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AS조직을 확대하며 현지 직접투자를 늘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기의 경우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등 세계 유명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국산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판촉행사 전개 및 현지 유통망 확충을 통한 세일즈 강화가 요망된다.

가정용기기는 경기회복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완제품 수출에 병행해 부품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금형은 자동차, 전자산업의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한국산의 경우 품질개선, A/S 제공 확대 및 제품 공급기간 단축이 요구되고 있다.

8. 주요 프로젝트 대한 우리업체 진출방안

동남아 최대의 실리콘밸리인 Cyber Jaya조성,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보통신 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IT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진출이 유망하다.

또한 국내경기 진작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도로, 항만, 철도, 주택 등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현지 입찰정보 조기 입수 및 긴밀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건설공사는 물론 국책 프로젝트에 합작투자 진출도 바람직하다.

태 국

1.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

'90년 이후 평균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던 태국 경제는 '97년 8월 바트화 평가절하 이후 '97년 -1.8%, '98년 -10.4% 성장을 기록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99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어 '99년에는 4.2%가 성장했으며 금년에는 5%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99년 수출은 568억달러로 '98년보다 7.4% 증가했으며 올 1/4분기에는 지난해에 비해 12% 성장했다.

'99년 수입은 478억달러로 '98년에 비해 17.7%나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및 원자재 부품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큰 폭의 수입증가로 인해 '99년의 무역수지는 89억달러를 기록했다.

'99년 자본수지는 61억달러 적자를 냈지만 95억달러 적자를 낸 '98년보다는 감소했다. 자본수지 적자 감소는 미야자와 플랜에 의한 차관 및 IMF 자금 지원 등의 공공부문 차관 68억달러 도입으로 인한 것이다.

자본 수지는 적자지만 무역수지 등의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는 11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8년에 862억달러이던 외채는 '99년에 756억달러로 감소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348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율도 38~39바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9년 물가상승률은 0.3%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역시 '99년 4.2%에서 올 3.19%로 떨어

질 전망이다.

2. 최근 경제 호전 요인

태국의 경기 호전을 이끈 것은 정부 지출 정책을 통한 수요 진작 노력과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이다. '99년 3월 태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고 조세 및 관세 제도를 개편했으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등 경기 부양책을 통해 투자와 수요, 고용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 결과 2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99년에는 4%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태국은 '97년의 외환위기로 IMF로부터 총 172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99년 6월이후 IMF로부터의 지원을 중단했으며 올 6월에 IMF 관리체제로부터 벗어났다.

경제위기전 달러당 25바트를 유지하던 바트화의 가치가 달러당 40바트대로 하락하면서 태국의 상품은 경쟁력을 얻게 되어 '98년에 529억달러 수출로 '97년보다 -6.8% 감소했던 수출실적이 '99년에는 568억달러로 7.4%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622억달러로 9.5%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은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11.1%나 증가했다. 광업은 6.8%가 증가했고, 무역업 역시 다른 산업의 증가세를 타고 5.5% 증가했다. 다만 금융업은 아직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 분야 역시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98년에 -10.8% 성장을 했던 제조업은 '99년에 비약적으로 성장해 11.1%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의 증가와 정부 수요 진작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제조업 성장을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산업에서 78.8%, 건축자재산업이 12.3%, 철강산업이 13.3%, 식품 및 음료산업이 19% 각각 성장했으며 그 외에도 유리, 집적 회로 생산 등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섬유 산업 등은 1.2%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99년의 제조업 가동률은 '98년의 52.1%에서 증가한 60.0%이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3. 교역 현황 및 외국인 투자 동향

'99년 태국의 수출액은 568억달러로 컴퓨터 부품, 집적회로, 의류, 자동차, 폴리에틸렌, 쌀, 보석, 고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중 '99년에 큰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자동차로 전년대비 44.3%나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집적회로가 29.2%, 폴리에틸렌이 22.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99년 태국의 수입액은 529억달러로 전기 기계류 수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집적회로, 산업 기계, 화학물, 원유, 컴퓨터 부품, 철강 순으로 수입했다. '99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철강으로 45.2% 증가했으며, 다음은 직접회로와 컴퓨터 부품이 각각 24.1%, 20.9% 증가했다.

태국의 수출은 대부분 농산물, 고무, 수산물 등 1차 산품이나 컴퓨터, 전자제품, 자동차의 조립생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역시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99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서 수출 역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철강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컴퓨터부품 및 직접회로는 '99년 태국의 수출 1, 2위 품목으로 수입도 이를 생산하

기 위한 부품 및 원자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98년에는 403건 46억달러이던 외국인 투자액(개시 기준)이 '99년에는 346건 38억달러로 12%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일본으로 23억달러를 투자를 했으며 다음으로 EU 6억5천만달러, 미국 2억6천만달러, 호주 2억달러, 싱가포르 1억9천만달러, 한국 9천만달러 순으로 투자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바뀌는 투자 정책의 변화 중 중요한 것은, 첫째 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나 ISO와 준하는 기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둘째 과거 외국인 투자기업에 요구하던 Local Content(국내 부품 사용의무 조항)와 수출 의무 조항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BOI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BOI가 요구하는 Local Content 비율과 수출 쿼터를 채워야만 했다. 이러한 투자 정책의 변화는 품질이 우수하고 자금력이 튼튼한 우량 기업만을 유치하고 태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4. 한국 상품 진출 현황

'99년 한국의 태국 수출액은 17억달러로 '98년의 14억달러에 비하면 19% 증가했지만 경제위기 전인 '96년의 26억달러 수출 규모에 비하면 아직 저위에 있다. 수입은 '99년 10억달러로 약 7억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중동의 산유국을 제외하면 일본에 이어 2번째의 교역 적자국이다. 한국과 태국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태국은 조립생산을 기반으로 공산품을 인근 아세안 국가 및 미국, 일본,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원부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수출 주종 품목인 컴퓨터, 가전제품, 섬유류 등의 원료 및 반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수출품은 태국의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인 직접회로, 음극선관, 철강제품, 직물류, 컴퓨터부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태국의 농산품 수출 증가에 따라 비료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국으로부터 수입은 천연고무, 냉동새우, 목제품 등 1차산품과 노동집약형 상품으로 컴퓨터 부품, 전자부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일반 소비재 완성품의 교역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태국 시장이 고급시장과 저급시장으로 양분되어 한국산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급시장은 일본, 미국, 유럽제품이 장악하고 있으며 저급 시장은 중국, 대만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세탁기, 냉장고, TV등 전자제품은 현지 투자업체의 마케팅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5. 수출확대 마케팅 전략

태국의 '99년 GDP는 1,250억달러이었으며 수출액은 566억달러로 GDP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4%나 된다.(미국의 경우는 0.8%, 일본의 경우는 10%에 불과) 또한 '99년의 경제 성장률은 4%이며, 수출증가율은 7%에 이른다. 이에 반해 내수인 민간소비 증가율 및 민간투자증가율은 각각 4%, 0.8%에 불과하다.

● **태국의 수출 통계**(2000. 1~5)

(단위 : US$ 10억달러, %)

품 목	액 수	증가율
컴퓨터 및 부품	3.39	7.0
집적회로	1.51	45.1
의류	1.20	16.1
자동차 및 부품	0.81	25.2
플라스틱 원료	0.73	68.4
TV 및 오디오	0.73	77.0
자연 고무	0.69	59.1
보석 및 장신구	0.65	12.1
에어컨	0.57	25.6
철강	0.59	67.8
쌀	0.56	-21.6
냉동 새우	0.53	28.5
통조림	0.52	-5.8
화학제품	0.48	70.9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0.44	51.7
고무제품	0.42	22.0
신발	0.38	-2.1
가구	0.38	33.0
플라스틱제품	0.37	29.2
직물	0.35	13
설탕	0.31	-16.3

이는 태국의 경제를 수출분야가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태국 수출 산업중 최근 수출증가율 높은 산업을 우선 가려야 하고 이중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골라내야 할 것이다.

올 1~5월 동안 수출을 가장 많이 한 품목은 컴퓨터와 집적회로, 의류, 자동차, 플라스틱 원료 등이며, 수출증가율이 큰 품목은 TV 오디오, 화학제품, 플라스틱원료, 철강 등이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 공업 및 기타 건설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제품, 각종 플라스틱원료 및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화학원료, 전자제품 및 컴퓨터의 부품 등이 유망하며 이는 실제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도 일치한다.

이외에도 태국은 식품산업이 발달해 있으므로 각종 식품 가공 기계 및 식품 포장재 산업 등이 계속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이지만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대부분 일본 자동차 회사가 현지 생산을 하는 관계로 진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태국의 PC 보급률은 2.5%(약 150만대)이며,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100만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1/10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태국 정부에서도 정보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IT산업이 급속히 발달할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IT 분야는 우선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전산망, 학교전산망, 정보고속도로 등의 프로젝트를 경제위기 이전에 추진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위기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함께 이러한 정보통신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 영세한 수준으

로 90% 이상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8천명 비교적 큰 소프트웨어 업체가 약 20여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각 기업, 공장, 병원, 학교 등에서 수요될 막대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언어적인 장벽만 극복할 수 있다면 시장성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 시장은 약 5천만달러의 시장으로서 이중 시스템 유지보수가 60%, 나머지 PC 유지보수가 약 40%를 차지한다. 시스템 유지보수는 대부분 시스템과 함께 계약이 되므로 우리 업계가 진출할 여지가 적지만 PC 유지보수는 태국의 IT 인력이 아직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언어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태국 정부는 현재 푸켓에 대규모 사이버 시티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로선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있으나 스웨덴 Telia AB등이 1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등 관심 투자업체가 많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 인프라의 구축은 시간문제로 생각된다.

우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직접 투자를 통해 태국의 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98년 태국의 전체 수입품중 자본재는 53.5%, 중간재는 29.9%이지만 소비재는 12.4%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소비재는 일찍부터 진출한 유럽, 일본, 미국계의 투자회사를 통해 공급이 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인지도 및 경쟁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을 통해 자국의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중소기업형 제품인 소비재를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유통산업의 진출을 통해 우리 유통망을 통한 수요 창출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효율 절전 제품을 사용합시다.